



제목	Turkish Embassy Letters Reprint Editio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Virago Press
발행일	1994. 1. 27.
저자	Lady Mary Wortley Montagu
출판도시	London
페이지수	256
ISBN 또는 ISSN	978-1853816796

**내용 요약**

본 책은 영국인 터키 대사부인인 메리 W. 몬테규 여사가 1716년에 터키에 거주하는 동안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 영국인 여성이 바라본 당시 터키의 일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편지들은 터키제국의 유대인에 대한 대우, 궁핍한 일반인들에게 터키군대가 행한 잔혹한 행위, 터키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그리고 자신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터키 건축의 경이로움을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다. 그녀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가에 따라 편지 주제를 달리했는데, 예를 들면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알렉산더 포프에게 쓴 편지에는 아랍 시인의 장대한 시를, 성직자에게 쓴 편지에는 터키인들의 종교적 신념과 종교의식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여자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터키 지역 여성들의 옷과 헤어스타일을 묘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녀가 흥미를 가진 주제 중 하나는 그녀가 만났던 여성들이다. 그녀는 여성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했던 목욕탕, 다양한 하렘 그리고 공공 목욕탕에서 행해진 혼인 예식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그녀는 술탄과 다른 위대한 터키 지도자들의 아내들과의 만남을 기술하였으며, 그들의 기품 있는 태도와 침착함에 대해 극찬하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눈으로 본것을 묘사하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차도르 착용, 빈번한 전쟁, 배일속에 가려진 이슬람 여성들의 역설적인 자유, 터키 의사들이 행한 예방접종의 실험적 가치, 아랍 시와 문화의 아름다움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함으로써 당시의 터키 사회의 모습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 완전히 다른 타민족의 문화를 자신의 시각과 관념에 적용하여 비판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이 책이 갖는 의의가 크다 하겠다. 본 책은 메리 여사의 서신들을 모아 수정하여 출간한 것으로 총 42장의 편지가 수록되었다.